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 사회교과서 개발의 난제와 방향

홍 미 화 · 곽 혜 송
춘천교육대학교 · 서울상봉초등학교

I. 들어가기

교과서는 ‘성전’이 아닌 하나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과서가 교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져보면, 자료집의 성격을 최대한 지향한 교과서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지위는 성전과 같다. 국가 교육과정에 준한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국정 교과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의 교육 주체들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방법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고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교과서는 결국 교육 주체들이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텍스트(text)라기보다는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절대적 북(book)이다. 교과서가 당장 수업을 개선하거나 교육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교과서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바람, 즉 상반되는 두 시각이 교과서에 담겨 있다. 교과서의 한계와 바람 속에 새로운 사회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다.

새 사회교과서 편찬의 가장 큰 특징은 학년군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12월 공포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 이에 따라 2011년 초등사회과교육과정은 3·4학년, 5·6학년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고시되었고, 사회교과서 또한 3·4 ① ② ③ ④, 5·6 ① ② ③ ④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3·4학년 사회교과서는 실험본 완성 단계에 있으며 5·6학년은 교육과정 상세화 작업과 집필세목 작성을 거쳐 초고 작성 과정에 있다.

교과서 개발은 새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교육적 해석들이 충돌하고 타협하게 되는데, 그 논의의 중심에는 교육 내용이 있다. 교과서 개발의 핵심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교육 내용을 수업을 위한 교재로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과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선정과 조직은 교과서의 내용 제시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 관련 문제는 교과서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교과서 개발은 주어진 형식이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가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인 것이다.

본 연구는 2007 개정 초등사회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 나타난 학년별 내용의 문제를 파악하고, 새 사회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살펴본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전유물이라기보다 교육과정 해석의 결과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의 과정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차

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교과서 개발 과정에 관한 교육 주체들의 이해를 도와 교과서의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현행 사회교과서의 문제

교과서 개발은 그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 축에, 기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다른 한 축에 놓고 이루어진다. 새 교과서에는 새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기존 교과서가 가진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초등사회교과서 개발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서 2007 개정 사회교과서에 대한 비판점들을 살펴본다. 이는 현행 교과서 또한 지침이 되었던 교육과정의 내용의 문제들을 파악, 보완하기 위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마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교과서 개발에서의 난제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1. 내용 배열의 문제

2007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한 수시개정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역사 영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타 영역의 축소·삭제 등으로 인하여 교육 내용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다. 2007 개정 사회교과서 또한 학년별 내용 이동과 내용 축소 및 삭제 등을 고스란히 겪으며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역사 영역에서는 4~5학년이 있었던 역사 내용 대부분이 삭제되고, 일부는 3학년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6학년 1학기 역사 내용은 5학년으로 이동되었다. 지리·일반사회 영역에서는 4학년과 5학년의 내용이 3학년으로, 5학년의 내용이 4학년으로 또는 6학년으로 이동되었다. 초등사회과의 변천의 역사 속에서 환경 확대법과 나선형교육과정의 원칙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져 온 내용 배열이 크게 흔들린 것이다.

내용 배열은 교육 내용을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기초한다. 그래서 내용의 학년 간 이동은 관련 연구를 축적, 검토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어찌되었든 2007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는 무관한 이유로 내용 배열에 전면적 변화가 일어났고, 교과서 개발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하나의 방편이 학년 수준에 맞게 내용 수준, 어휘와 용어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과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선정하여 생활 경험과 교육 내용과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2007 개정 사회교과서는 이 부분에서 실패하였다. 환경확대법을 보완한 탄력적 환경확대법은 소재 선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재의 풍부함을 담보하였으나, 다른 단원 및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까지 침범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1단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교육과정의 '교장 사람들은 자연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단원이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 내용 선정의 범위였던 시군구의 테두리를 벗어나 다른 나라의 지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의 관계, 다른 나라의 기후와 생활 모습과의 관계가 주요 활동으로서 다뤄지고 있다. 또한 6학년 2학기 2단원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서 나오는 고원, 건조 기후 지역, 열대 기후 지역, 한대 기후 지역과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성취 기준의 핵심인 고장의 자연 환경과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학습은 주요 활동의 이전 과정에서 간략히 나오고 있을 뿐이다.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내용은 기본적으로 고장-지역-우리나라-세계의 틀에서 배열하였으면서 하위 성취 기준에는 학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나 소재를 다룰 수 있도록 열어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적 틀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내용 중복, 반복의 문제를 가져온다.

2. 내용 구성 방식의 문제

2007 개정 사회교과서의 구성은 7차 사회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활동의 과다와 가르칠 내용의 모호함을 개선하고자 사회과의 용어 및 개념, 일반화를 부각시키고 이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수준의 활동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3, 4학년 교과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3, 4학년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단원 도입-제재 도입-제재별 학습과정-제재 정리 및 심화-단원 정리의 순서로 되었다. 단원 도입에서는 각 단원의 주요 내용이나 일반화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제재 도입에서는 주요 용어와 함께 단원 도입과 같이 각 제재의 주요 내용이나 일반화를 나열하면서 단원 전체적으로 보면 연역적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는 5, 6학년 교과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5, 6학년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서는 3, 4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문적 영역을 강조하면서 내용 중심으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교과서는 설명형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었고, 사회과탐구는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수준의 워크시트가 활용되었다. 한 차시를 기준으로 보면 6학년의 경우 명사형의 차시명이 나오고 그 차시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이 설명형 텍스트가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시 학습을 정리하는 발문이 나오며 이는 사회과탐구에 마련되어 있는 워크시트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가르칠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다보니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어휘들이 자주 등장하고, 사회과의 용어나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들로 지면이 채워졌다는 점이다. 교사가 문장들을 읽어가며 이를 쉽게 풀이하여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학생들은 이해한 내용을 다시 사회과탐구에 마련된 빈칸에 채워 넣는 식의 수업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설명형 텍스트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의 생활에서 추출한 내용 및 사례가 부족하다. 이는 7차 교과서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인물을 등장시키고 이야기를 끌여가는 구조가 작위적이고 지루하다는 비판에 대한 작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정치, 경제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친근한 소재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교육내용과 생활과의 괴리라는 기존 사회과에 대한 해묵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3. 수업 적용상의 문제

2007 개정 6학년 사회교과서의 가장 특이한 점은 교과서 본문 속에 사회과 의사결정모형, 문제해결모형, 탐구수업모형 등의 사회과의 주요 수업모형의 단계가 소개되고 그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제에 맞는 적절한 수업모형을 안내하여 수업방법에 대한 교사의 고민을 덜어주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지도서가 아닌 교과서에 이를 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교과서를 통해서 특정한 수업모형을 강제하여 교사가 다양한 수업방법을 구상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켰

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6학년 1학기 4단원 ‘세계 속의 우리 경제’에서는 개념학습 모형으로 무역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서 본문이 개념학습 단계에 따라 기술되어 있으므로, 게임이나 활동을 통하여 무역의 개념을 재미있게 익히게 하는 등 교사가 다른 수업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할 여지를 차단시킨 꼴이다. 한편으로 무역의 뜻을 이와 유사한 교역, 거래의 개념과 비교하여 정의하려다보니 차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교역, 거래의 뜻까지 따져보아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는 학교나 교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재구성을 지향하는 흐름과도 맞지 않다. 교과서가 특정한 수업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과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내용 구성 방식의 문제에서 기술하였듯이 2007 개정 사회교과서는 단원 도입 및 제재 도입에서 일반화 내용을 미리 선보이면서도 각 제재학습은 ‘들어가기-살펴보기-풀어보기-매듭짓기’로 문제해결과정을 거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 단원에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충돌하고 있다. 교과서 순서대로 수업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최종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미리 훑어본 후 그것을 모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시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된다. 이는 교사의 편에서는 도입-전개-정리로 이어지는 자연스런 수업 과정을 방해하고, 학생의 편에서는 선행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형성해나가는 사고의 과정에 혼란을 주게 된다.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교과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재구성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Ⅲ.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문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 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학년군의 도입이다. 학년군의 설정 취지의 성패는 교과교육과정의 학년군별 개발에 있다. 과연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은 이러한 총론의 정신을 살리고 교과서 개발의 기준으로서 온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전술하였듯이 형식적으로 보면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은 학년군으로 단원을 제시하면서 교육과정 대강화의 원칙에 따라 단원 개요와 성취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1. 내용 중복의 문제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은 5·6학년군의 학습 내용을 지리·일반사회 영역과 역사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지리·일반사회 영역은 8개 단원으로, 역사 영역은 6개 단원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의 5학년 역사 영역과 6학년 지리·일반사회 영역 모두 6개 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지리·일반사회 영역의 단원의 수가 2개 증가한 것이다. 성취 기준의 수를 보면 현행 단원별로 4~8개씩 제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지리·일반사회 영역은 단원별로 4개의 성취 기준을, 역사 영역은 단원별로 4~5개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 각각 32개, 27개이다. 성취 기준의 수가 현행 지리·일반사회 영역 40개, 역사 영역 34개에 비해 줄었으므로 단원 증가로 생기는 학습 내용의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다.

<표 III-1> 2007 개정,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의 지리·일반사회 영역 내용 비교

영역	교육과정	2007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지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운 우리 국토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기 좋은 우리 국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일반사회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경제의 성장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 영역에서는 2007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의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과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으로 나누어, 전자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일본, 러시아를, 후자에서는 전자에서 다룬 나라들을 제외한 나라들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성취 기준을 보면 ① 지도 및 지구본을 활용한 위치와 영역, ② 각 나라의 크기와 영토 모양, ③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 ④ 우리나라와의 관계로, 각 단원에서 다루는 나라들만 달라질 뿐 주요 학습 내용은 거의 같다. 첫 번째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도 및 지구본을 활용하는 것까지 같아서 한 단원에서는 지도를, 다른 단원에서는 지구본을 활용해야만 중복을 피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이 세계 전체를 한 단원에서 다루면 차시별 학습 내용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피상적으로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단원에 걸쳐 다루다보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제한된 지면 아래 교육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 및 소재를 선정하는 작업이다. 지도나 지구본을 활용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의 위치와 영역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또 다시 같은 자료를 펼쳐들고 그 외의 나라들의 위치와 영역을 살핀다는 것은 내용과 활동의 중복이다.

내용 및 활동의 중복 문제는 일반사회 영역 단원의 ‘우리 사회의 과제와 발전’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단원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내용에서 하나씩 가져와 성취 기준을 만들었다. 단원의 성취 기준과 이와 유사한 단원의 성취기준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5·6학년 ‘우리 사회의 과제와 발전’의 성취 기준 및 이와 유사한 단원의 성취 기준 비교

‘(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발전’의 성취 기준	관련 단원의 성취 기준
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예: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자원 고갈 등)를 확인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2) 우리 경제의 성장 ② 경제 정보가 담긴 자료(예: 통계, 사진, 각종 지표 등)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과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역사](6)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④ 사례를 통해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 변화와 과제를 파악한다.
②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여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예: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 등)를 갖는다.	[역사](6)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③ 주요 사건에 대한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
③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예: 문화 이질화, 새터민 문제 등)들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	[역사](6)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⑥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본다.

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다.	
④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활용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인 문화발전을 통해 세계문화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8)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① 정보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예: SNS의 영향, 저작권 문제, 사이버 일탈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세계화 양상을 우리 삶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위의 각 성취 기준을 보면, 일반사회 영역 및 역사 영역에서 다를 수 있는 내용을 문제나 태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각 단원에서 충분히 다를 수 있고 혹은 꼭 다루어야 할 내용을 분리하여 하나의 단원을 만든 것이다. 단원 설정의 취지나 해설서 없이, 집필자에게 주어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다른 단원과의 중복을 피하여 집필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사회영역의 각 내용(예: 선거, 경제성장, 다문화 등)들은 내용지식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태도, 문제 이해와 문제해결을 동시에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 단원은 일반 사회 영역의 모든 내용을 문제 중심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제시한다. 과연 사회과교육에서 지식과 능력, 그리고 태도 목표는 별개로 작동하는 것인가? 가형 경제 성장의 과정을 학습하면 당연히 그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은 그 학습의 장에서 다양한 교수·학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 성취 기준 ①의 경우에는 ‘(2) 우리 경제의 성장’의 두 번째 성취 기준에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 지적 요소와 능력·태도의 요소를 별개의 단원으로 분리한 근거는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이러한 단원 증가는 내용 중복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차시 증가로 이어진다. 과연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수업 시수의 감축을 염두에 두었는지 의문이 간다. 교과서 개발에서는 단원 증가에 따른 내용 중복과 수업 시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2. 내용 배열의 문제

앞에서 다룬 내용의 중복 문제는 개념 및 내용 배열 원칙의 부재에 기인한다. 사회과교육과정 및 그에 기초한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어 배우도록 계획된’ 학습 경험과 같다. 사회과의 내용이 잘 배열되었다는 것은 선행 내용을 기초로 후속 내용이 전개되면서 점차적으로 내용의 확대와 심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사회의 경우 3학년 학습 내용이 6학년까지 완결성을 갖추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이후 학습에의 토대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확대법과 나선형교육과정의 원칙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탄력적 환경확대법과 상충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과 맞지 않는 내용 및 소재로 인한 혼란이 교과서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를 유지한 상태에서 학년군 편제가 도입된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군의 설정을 놓고 과연 두 개 학년을 하나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논쟁을 매듭짓지 못한 채 사회과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합, 분리하여 배치하였고, 그 근거 또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내용 영역이 학년군으로 제시되어 이전 교육과정 때에 비해 다소 자유로운 내용 배열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내용을 배열할 수 있을까? 전과는 달리 교육과정 해설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단원 개요와 성취 기준에만 기대어 단원의 수준을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내용 및 개념의 위계를 따지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다. 결국은 2007 개정 사회교과서의 학년별 배열을 따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현행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기존 교육과정의 배열이 가져온 문제를 해소하면서 학년군 설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3. 내용 진술의 문제

실제적으로 보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해석하여 지면에서 표현하는 작업이다. 교육과정 해설서가 없는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집필자의 해석을 안내하거나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 교과서 개발 연구진과 집필진 및 심의진은 이를 조정, 완화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성취 기준을 교과서로 전환하는 작업 즉, 성취 기준 설정의 의도 및 주요 학습 내용의 파악, 학습 내용의 폭과 깊이의 설정, 적절한 소재의 선정은 오롯이 집필자의 몫이다. 만약 성취 기준의 내용 진술이 모호하거나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거나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음 5·6학년 지리영역의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의 성취 기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본다.

〈표 III-3〉 5·6학년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의 성취 기준

단원	성취 기준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뜻을 알고, 그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② 국토 개발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③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④ 국토 수준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친환경적인 태도를 갖는다.

위의 첫 번째 성취 기준에서 다루는 개념은 환경이며, 가르쳐야 할 내용은 환경의 뜻과 환경의 특성이 다. 단원의 개요에서 이 성취 기준을 해석하는 단서를 찾는다면 '국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을 관찰하고 조사하여', '환경에 따라 자연적인 경관이 서로 다르며, 사람들의 생활모습에도 차이가 있음을 이해', '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 등이다. 이에 따르면 성취 기준에 말하는 '환경'은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필자는 한 줄로 끝낼 수는 있는 환경의 뜻을 그대로 정의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초등학교 사회에서 '환경'을 다루는 첫 차시였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은 3·4학년군의 첫 번째 단원에서부터 나온다. '(1)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시작하여 '(6)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7) 혼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로 5·6학년군의 '(1) 살기 좋은 우리 국토'에서 유사한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단원에서 다루지 않은 사진이나 삽화, 소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네 번째 성취 기준에도 해당된다. 국토의 환경을 살펴보면 당연히 그에 터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다루게 된다. 앞서 말한 단원의 '우리 지역의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활 모습', '혼락 지역의 생활 모습' 등에서 이미 다루었을 내용이다. 3·4차시로 구성할 수 없는 빈약한 성취 기준을 어떻게 풍부하게 해석하여 교과서로 만들 수는 없다.

반면에 아래와 같이 3·4차시에 담기에는 내용이 많은 성취 기준도 있다.

<표 III-4> 5·6학년 '(4)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의 성취 기준

단원	성취 기준
(4)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①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예: 국가 조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을 이해하고, 법(예: 민법, 형법)이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예: 국방·납세·근로·교육·환경보전·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국회, 행정부,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각 기관이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예로 든 국가 조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다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성취 기준의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와 중복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법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로 든 민법, 형법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집필자는 민법, 형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의 종류를 나열한 세 번째 성취 기준에도 해당한다. 집필자는 나열된 모든 의무를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이 중 일부만 다루어도 되는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자를 선택하면 한정된 지면에 그 많은 내용을 담을 내용 구성의 방식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내용을 40분 수업 동안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교사의 고민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성취 기준의 내용 진술의 모호성, 성취 기준이 담고 있는 내용 두께의 비일관성은 교과서 개발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IV. 새 사회교과서 개발을 위한 대안

이상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로 대두된 교육내용의 모호성과 중복, 학년별 비연계성, 내용 두께의 비일관성 등은 교과서 개발의 핵심적인 난제로 주목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추구하는 학교 자율성 강화와 학습자의 학습부담 경감을 주도하려면 학년군과 교과군, 그리고 적절한 집중 이수제를 위한 교과교육과정의 적절한 조치가 필수이다. 그러나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은 교육내용 간의 통합과 융합 과정 없이 학년군을 만들고, 도덕 교과와의 동일군으로 묶는 등 교실의 수업 사태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교과서 개발은 교육과정 분석과 해석에서부터 집필의 난항이 예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교과서 초고 작성 과정에 있는 5·6학년 사회교과서 개발의 과정을 중심으로 그 대안과 주요 아이디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새 사회교과서 개발의 주요 특징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하는 능력 및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인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교과서는 쉽고 재미있고 편리한 교과서 만들기라는 기존의 정신을 유지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점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지적 유연성과 창의적 사고를 추구하는 사회교과서이다. 사회교과서는 타 교과와 달리 사회 현상을 대변하는 지식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교재로서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과의 학습내용을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정보 즉,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로 구성할 경우, 지식의 가변성은 배제되고 사회 현상을 반영한 지식 구성 또한 방해받는다. 의미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형성되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주변 환경과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교과서는 사고의 맥락을 중시하며 내러티브적 사고과정의 구조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바른 인성과 유연한 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교실 내·외에서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상호 보완적인 탐구와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에 기초한 사회교과서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 경험과 생활을 토대로 세계를 이해한다.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주입과 암기 교육의 폐단을 교과서상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교과서는 사회과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 일반화 등 주요 내용과 함께 해결하는 방법과 결과를 동시에 담고 있어야 한다. 이에 새 교과서는 사회교과서와 사회과 탐구를 합본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본 교육내용과 읽기자료 중심으로 교과서 내 이원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주제와 문제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욕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셋째,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사회교과서이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 적성, 학습 능력 등에 따른 수준별 수업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재미와 흥미는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내용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기본 수준을 잘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즉 심화와 보충의 모든 기준은 기본과정이라는 점이다. 기본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보충의 성격과 동일하다. 따라서 새 교과서는 제재 내용 속에서 기본과 심화의 조화를 꾀한다. 사회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의 차이에 따른 기본 활동의 전개가 가능한 교과서, 한 주제에 대한 읽기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핵심 개념을 터득할 수 있는 교과서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의 기본 수준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내용과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즉 제7차 사회과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활동의 부담과 2007 개정 사회교과서의 내용 과다 및 부재의 문제를 조화롭게 담고자 한 것이다.

넷째, 미래 사회의 정보화,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사회교과서이다. 21세기의 학생은 본격적인 멀티미디어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그들에게 인터넷은 생존의 도구이자, 새로운 세계 창조의 수단이다.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할 사회교과서는 학생들이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알아 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교과서는 기존의 텍스트 중심 교과서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디지털교과서, 교과서 CD를 제작)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진주교대국정도서 사회 편찬위원회, 2012a: 12). 이를 통하여 서책형 교과서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 변화하는 정보를 사용자의 수준에 담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분명한 사회교과서이다. 기본적으로 사회교과서는 교과 특성상 알아

야할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 그리고 일반화 등이 다른 교과에 비하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과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 및 일반화 지식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진술해야 하지만, 기존 사회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처럼 지루하고 어려운 학습내용을 나열할 경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 많은 사실을 나열하는 교과서가 학생의 흥미를 잃게 한다면, 가르칠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한 교과서 또한 교사를 당황하게 한다. 새로운 사회 교과서는 학생의 학력과 교사의 능력을 위하여 수업 내용을 분명하면서도 방법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과서는 학습내용만을 담보하는 교재가 아니다. 교과서는 학습내용과 학습자를 매개하는 교육적 교재인 것이다. 사회 현상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 사회교과서는 학습내용의 정형화도, 학습자의 불변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새 사회교과서는 사회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이상의 특징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현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다. 새 사회교과서의 기본 편찬 방향은 현행의 사회교과서와 사회과탐구 교과서를 1책으로 합본 개발하여 학교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실제 수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내용 중심 교과서와 활동 중심 교과서에서 나아가 학습 중심의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내용 제시 방식과 아이디어 적용하고자 한다.

2. 사회과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의 내용 중복과 단원 증가, 성취 기준의 연계성 부족 등은 교과서 개발의 난제로 작동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진의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영역과 지리·일반사회영역의 학년별 균형 배치안

2007 개정 사회교과서는 역사중심의 5학년 교과서와 일반사회와 지리영역 중심의 6학년 교과서로 내용을 구성하였지만 새 사회교과서는 학년균의 적용으로 5·6 ●, ②, ③, ① 로 개발, 5학년에 배치되었던 역사영역을 5·6 ②와 5·6 ③에 배치되고, 지리·일반사회영역을 5·6 ●과 5·6 ①에 제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학교현장에서 역사영역의 학습은 5학년 2학기과 6학년 1학기 교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지리·일반사회영역은 5학년 1학기과 6학년 2학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교과서 구성은 2007 개정 사회교과서의 학년 간 연계성과 통합성 부재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며, 학년균의 영역별 균형지도와 사회과 통합의 성격, 그리고 학습자의 인지발달에 근거한 근현대사 지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정된 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과 내용 영역의 학년별 재구성은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일반사회영역이나 지리영역의 내용 재배치를 전제하고 있어서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자의 각 영역별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표 IV-1> 2007 개정 사회교과서와 2009 개정 사회교과서의 학년별 내용 구성 비교

학년	영역	2007 개정 사회교과서		2009 개정 사회교과서	
		역사영역	일사·지리영역	역사영역	일사·지리영역
5	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된 거래 ◦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 좋은 우리 국토 ◦ 우리 경제의 성장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6	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우리 국토 ◦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둘째, 지리·일반사회영역 단원 증가에 대한 주제 및 차시 감축안

2009 개정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의 5·6학년군의 단원 수는 지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12개 단원에서 14개 단원으로 2개 단원(지리영역 1개 단원, 일반사회영역 1개 단원)이 증가하였다. 비록 2007 개정에 비하여 각 학년별 성취 기준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단원 수의 증가는 성취 기준의 수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단원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시수 증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취 기준의 통합과 차시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2007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단원 당 6~8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교과서에서 통폐합하여 4개의 주제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단원별로 4개이며, 이것은 내용의 깊이와 폭을 담보하는 형식을 담고 있다. 교과서의 단원과 주제, 그리고 차시의 구성은 일정한 규칙성이 요구되며, 따라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진술에 따라 새로운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내용 진술은 경우에 따라 매우 얇거나 두꺼운 양상, 즉 일련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어떠한 성취 기준을 어떻게 통합 배치하는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새 교과서는 학교 현장의 수업 시수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단원의 주제수와 차시수를 감소시켜 구성할 예정이다.

<표 IV-2> 2009 개정 초등 사회 5·6학년 교과서 단원 및 주제 조정안

학년	단원전개 순서	교육과정 단원명	주제수	차시수	차시수
5·6① (5학년 1학기)	1	(1) 살기 좋은 우리 국토	3	11차시	48차시
	2	(2) 우리 경제의 성장	4	14차시	
	3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3	11차시	
	4	(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	3	12차시	
5·6④ 6학년 2학기	5	(4)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4	14차시	48차시
	6	(5) 우리이웃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3	11차시	
	7	(7)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3	11차시	
	8	(8) 정보와 세계화 속의 우리	3	12차시	

새 교과서는 정치와 경제 내용 단원을 제외한 전 단원을 3개의 주제로 설정하고, 4개로 제시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3개의 주제로 재구성하여 집필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제당 기본적으로 3차시로 구성하지만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 단원,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단원은 한 차시를 증가하여 구성하였다. 그 외 단원 도입과 단원 정리를 별도의 차시로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한 학기당 48차시로 구성되도록 고려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학년별 주제와 성취 기준의 내러티브적 구조 모색

사회교육과정의 학년군에 따른 성취 기준의 연계성 부족 문제는 학습과 교수를 위한 내러티브적 지식의 구조화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 지식이란 인간의 새로운 경험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상호관련 지어주는 발명품이며, 내러티브는 우리의 지식을 구성하는 도구이자 사고 양식인 것이다(강현석, 2009: 28). 교육과정 지식을 내러티브적으로 구조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사고양식이자 지식의 구조 방식으로서의 내러티브를 인정하고 교육과정을 의미 있도록 재구성하는 일이다. 새로운 사회교과서 개발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과정 내용 간의 연계성 부족은 교육과정 내의 단원과 단원 간, 혹은 단원 내 성취 기준을 내러티브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재배치함으로써 일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와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사고과정을 유인함과 동시에 학기제 중심의 학교 현장 실태를 적절히 조치하고 교과서 집필자의 유연한 집필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아이디어이다. 내러티브는 새 사회교과서의 내용 전개 방식의 하나로, 스토리 수준의 의미를 벗어나 교과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구조로 활용된다. 즉 새 사회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순서에 의하여 구성하기보다는 단원과 단원, 주제와 주제, 차시와 차시의 내용 흐름을 적절히 고려하여 <표 IV-3>의 집필세목 사례와 같이 재구성되어 집필된다.

<표 IV-3> 2009 개정 초등 사회 5·6학년 교과서 집필세목 예시안(정치영역)

영역, 주제	단원명	주제명	성취 기준	교과서에 진술될 주요 개념 또는 주요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1.	①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예: 국가조직의 기	* 단원 도입
			리	• 주제 개관 • 정치의 뜻,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정신 - 생활 속 사례를 활용하여 정치의 뜻 알기

생활과 정치	<p>본 원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을 이해하고, 법(예: 민법, 형법 등)이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정신을 사례를 통해 알기 • 민주 정치에서의 법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의 일과를 통해서 법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알기 - 민주 정치에서 법이 필요한 까닭 알기 • 헌법의 의미와 여러 가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헌법의 의미와 그 내용 찾기 -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 법(민법과 형법 등)의 적용 살펴보기 • 주제 정리 : 주어진 기사를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분석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법 만들기
2. 민주주의의 실현하는 기관	<p>④국회, 행정부,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각 기관이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개관 • 국가의 일을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맡는 까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정치의 원리와 관련지어 삼권분립이 필요한 까닭 알기 - 사례를 통해 기관들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모습 살펴보기 • 국가가 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사례를 활용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 알기 - 국회의원의 모의 인터뷰를 통하여 국회의 정당 활동,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기능 알기 • 행정부의 기능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이 하는 일을 통해서 행정부의 기능 알기 - 반 친구들이 잘 하는 일을 생각해보고,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행정부 각부 구성해보면서 행정부의 구조 알기 • 법원이 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 사례를 통하여 법원이 하는 일 알기 - 정의의 여신상의 의미를 통해 법원이 지켜야 할 일 알기 • 주제 정리 : 사례를 보고 국회, 행정부, 법원이 하는 일 찾기
3. 함께 지키는 권리와 의무	<p>③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예: 국방, 납세, 근로, 교육, 환경보전,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개관 •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통해 기본적 권리 알아보기 -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알아보기 •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의무 알아보기 (국방, 납세, 근로, 교육, 환경보전의 의무 등) - 어린이와 관련된 기본적 의무 살펴보기 • 기본적 의무와 권리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이면서 권리인 국민의 기본적 의무와 권리 관계 살펴보기 - 의무를 지키는 태도,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에 관하여 토의하기 • 주제 정리 : 하루 일과 속에서 기본적 권리와 의무 찾아보기
4. 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학교 생활 등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소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조한 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개관 • 학교에서 만나는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현장에서 마주하는 인권 침해 사례(학교폭력 등) 살펴보기 -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기 •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외의 생활 사례를 통해 인권의 의미 이해하기 -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 알기 •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 사회 및 국가의 노력 찾기 -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인권 보호에 대하여 찾아보기 • 주제 정리 : 주어진 사례에서 인권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단원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기 : 다이어그램 제시 및 학생활동 * 종합 사고력을 키우는 활동을 제시하기

넷째, 교과서 개발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성취 기준의 내용 중복 해결

5·6학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내용 중복성은 이전 교육과정의 경우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학년군과 교과군의 도입은 각 교과와 내용 중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하다. 내용 구성 체제에 대한 고민과 연구 없이 도입된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학년군 설정은 영역별, 학년별, 단위별 성취 기준의 계열성과 연계성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새 교과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중복 문제를 교과서 집필진 워크숍에서 논의하였으며, 집필세목 작성을 통하여 집필진 간의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추진하였다. 다음 <표IV-4>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중복을 유의하도록 권고한 내용의 일부이다.

<표IV-4>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중복 단위 집필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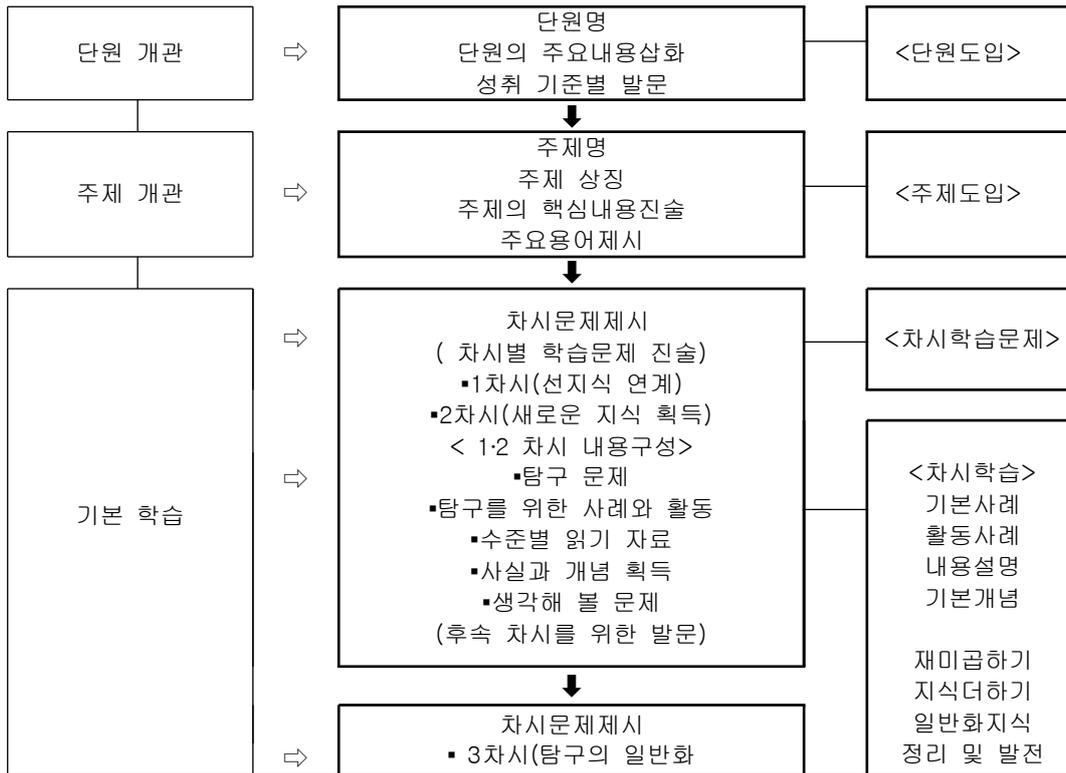
교육과정 단위명	교육과정 성취 기준	주요개념	유의사항
(2) 우리 경제의 성장 5·6①	<p>(2) 우리 경제의 성장 이 단원은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경제 성장 과정과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경제의 기본 특징인 자유와 경쟁의 의미와 여러 경제 지표와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한다. 아울러 다른 나라와 상호 의존하면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을 파악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p> <p>① 우리 경제의 특징을 경제 활동의 자유와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② 경제 정보가 담긴 자료(예, 통계, 사진, 각종 지표 등)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과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③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 기업가, 근로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④ 우리 경제가 국제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 경제와 상호 의존하며 경쟁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활동 *경제적 자유 *경쟁 *국민소득 *경제 성장 *산업 *경제 성장 *해외 진출 *국제 거래 *무역 *수입과 수출 *상호 의존 *국제 경쟁력 	<p>* 현행교과서에서는 6학년2학기단원에 있었으나 학년군 및 역사영역의 연계 지도 차원에서 5학년 수준으로 이동되므로, 어려운 용어나 사례를 피하여 쉽게 구성한다. 특히 통계나 그래프를 어렵게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p> <p>* 특히 4학년2학기 경제 단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6단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p>
(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5·6①	<p>(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이 단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를 통해 창조적인 문화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경제성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분단 국가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와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갖는다.</p> <p>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예,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자원 고갈 등)를 확인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②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여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예,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 등)를 갖는다. ③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예, 문화 이질화, 새터민 문제 등)들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다. ④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활용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인 문화발전을 통해 세계문화에 기여하는 태도를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의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합리적 해결능력 *대화와 타협 *민주적인 문제 해결 *통일 문제 *문화 이질화 *새터민 문제 *다문화 사회 *인터넷 *전통문화 *세계문화 기여 	<p>* 교육과정 전 단원의 내용과 중복의 우려가 많으므로 (사회문제, 경제성장문제, 환경 및 분단의 문제, 다문화 사회 등)타 단위(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근현대사부분 등) 집필내용과 중복되는 사례나 자료가 없도록 합의 조정이 필요함. * 4학년 1학기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단위와의 중복도 유의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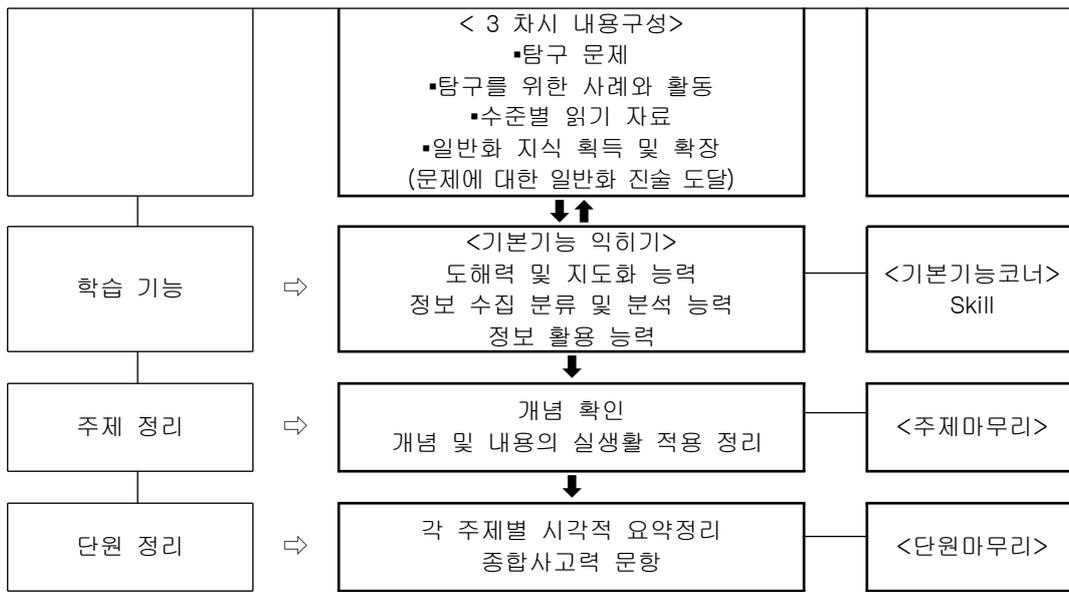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6 ① (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은 5·6 학년군 전 영역의 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매우 높으며, 이것은 교과서 집필의 가장 큰 난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교과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반드시 구현하여야 하는 것이 교과서 집필의 기본이라면 결국 교과서의 내용은 중복 없이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취 기준 진술의 중복 문제와 더불어 새 교육과정은 일반 사회 영역의 거의 모든 단원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례와 개념 중심의 일반사회영역의 지도를 극소화하고 사회의 부정적 측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집필진은 내용의 중복과 사회적 문제 중심의 내용 서술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사례의 중복과 문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내용 요소를 최소한의 교육과정 해석에서 찾고자 하였다. 또한 집필제목과 교과서 원고에 내용 요소와 더불어 활동이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각 집필자 간의 교차 검토와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교과서 집필자에게 교육과정의 취지를 해석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내용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책임을 교과서 집필자에게 넘기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제 교과서 개발의 난제인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내용 중복은 교과서 연구진과 집필진, 그리고 심의진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 합의와 조정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2009 개정 사회교과서 개발은 이전 교과서 개발과 다른 방식의 절차와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3. 새 사회교과서의 내용 구성 및 제시 방식

이상의 대안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교과서의 내용구성 및 제시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안하였다.





[그림 IV-1] 단원 구성 및 전개 방식의 기본적 흐름과 특징

각 영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구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의 전체 구성

- ① 단원 구성은 교육 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하되, 토요휴업일 전면 실시 등에 따른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실제적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화한다.
- ② 교육 현장에서의 재구성을 의도한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대강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단원 구성은 현행 「사회」 교과서의 구성 체계인 '단원 → 주제'의 순을 유지한다.
- ③ 현행 교과서의 특징인 각 주제별 도입-전개-정리의 순서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의면한 채, 교사 중심의 수업과정과 지도법에 치중한 결과임을 고려하고, 새 교과서는 학습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학습과정과 구성 체제로 전환, 단원과 주제에 따른 친편일률적인 전개 방식을 지양한다.

2) 단원 도입

- ④ 단원 도입에서는 앞으로 단원에서 배울 학습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과 상징물 및 간단한 텍스트를 통하여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상상적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단원 내 각 주제에서 배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간략한 도움 글을 제시한다.

3) 주제 전개

- ⑤ 단원 내에는 3~4개의 주제를 도입하고 각 주제는 기본적으로 주제개관-미리보기-문제 발견-정보 탐구

(기능 습득)-새로운 아이디어(일반화지식)확인-주제 정리의 틀로 전개한다. 그러나 단원의 내용에 따라 유연한 전개방식이 가능하다. 이 때 단원 내의 각 주제들은 파편적인 관계를 벗어나 유기적인 관련을 맺도록 구성한다. 또한 각 주제의 전개 과정은 내용과 방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 아이디어와 자료 제공,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 코너도 동시에 제공한다. 그리고 일관된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적절한 발문을 활용하여 학습의 성취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주제 정리는 본 주제에서 배운 개념과 일반화를 사례로 간략히 진술, 확인하도록 한다.

⑥ 주제 내 각 차시의 내용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p><차시별 문제 제시></p> <p>각 주제의 1차시는 왜 그 주제를 배워야 하는가와 관련한 사전 지식 점검에서 출발하여 간단한 동기부여 자료를 거쳐 비교적 쉬운 수준의 차시 학습내용으로 전개한다. 기본적으로 1차시는 가벼운 사례와 학습 동기부여, 다음 차시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p> <p>각 주제의 2차시는 별도의 동기유발 없이 1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확장되는 학습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진술과 읽기자료, 탐구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가독성 있는 용어를 사용한 쉬운 수준의 설명형 진술도 가능하며, 탐구나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 기존의 모형적용이 가능한 경우 학생의 사고과정에 유의하여 집필할 수 있다. 현행 교과서처럼 어렵고 불필요한 설명,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진이나 자료 제시 등을 지양한다.</p> <p>3차시는 1~2차시의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 해결 가능한 학습문제를 제시하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일반화진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한다. 지식 이해 측면의 내용이 많은 경우는 2차시와 유사한 전개가 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학습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차시 구성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3차시의 최종 학습의 결과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며, 각 학습 주제의 특성과 흐름에 따라 2, 3차시 성격의 교환 전개도 가능하다.</p> <p>각 차시의 중심이 되는 학습문제는 학생들의 수준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모든 차시는 일련의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행교과서처럼 각각의 내용이 진부한 설명으로 제시되거나 서로 간의 유기적 관련 없이 동떨어진 구성을 배제한다.</p> <p><각 차시별 본문내용구성></p> <p>각 차시의 문제 성격에 맞추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 구안과 요구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문제에 따라 구체적 사례와 필요한 지식을 쉽게 진술하거나 탐구 과정에 따라 진술가능하다(반드시 사례중심이 아니어도 좋다).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일반화 지식과 사고력 등을 매우 쉬운 문장으로 정리하여 기술한다. 경우에 따라 획득한 개념과 일반화지식으로 별도의 내용으로 적용가능하다.</p>

4) 단원 정리

⑦ 단원 정리는 주로 중심 개념과 성취 기준의 획득에 대한 기본적 점검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통합적 사고의 확장을 위한 사고력 중심 활동 과제를 두어 학습자의 다양한 표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⑧ 학습자들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는 단원 정리 활동에서 기존의 보충 과정을 폐지하고 기본과 심화 활동으로만 구성한다. 보충 활동은 교과서의 기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습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하는 코너로 이동, 반복 학습을 하도록 흐름도만 제공한다. 즉 현행 교과서의 '선택 학습'과 같은 별도의 활동 구성이나 보충의 의미가 담긴 코너는 삭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개념 및 원리 확인 학습, 통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창의적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도록 한다.

5) 기능코너와 읽기 자료

㉔ 고급 사고력과 탐구 기능 신장을 위하여 각 주제별 스킬(Skill) 코너를 구성하고, 주제의 성격에 따라 현행 「사회과 탐구」에 제공되고 있는 사고력·기능 학습을 위한 별도의 자료를 교과서 내에 제공한다. 그러나 개발과정 중에 있는 3학년과 4학년에서 이미 제시된 기능학습을 중복 제시하지 않으며, 고학년 사회과 내용의 범위와 계열에 적절한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㉕ 역사영역과 지리 및 일반사회영역의 학문적 성향과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발달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별도의 섹션이나 구성에 융통성을 준다. 역사 영역의 경우 연대표나 다양한 그림 연표 등을 활용하는 것, 생활사 중심의 통합주제 기술 방식 활용, 스토리 중심의 읽기자료 등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사실과 현상 중심의 일반사회영역은 학습자의 활동과 가독성을 최대한 배려한다. 또한 현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워크시트 형식의 빈칸 제공, 획일적 형식, 어려운 질문의 나열 등을 최대한 지양하고 제시된 읽기 자료와 본문 탐구 자료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발문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구성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새 사회교과서는 사회교육과정의 모호한 내용 규정과 내용 중복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필진 전체가 사회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처지이다. 연구진과 개발진이 제시한 형식을 집필진이 그대로 반영하는 전달과정에서 벗어나, 집필진과 연구진이 의견을 개진하고 중재하며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내용구성방식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기존의 교과서 내용 구성방식을 탈피하고 내용과 방법의 통합적 조화를 지향하는 교과서, 흥미와 진지함을 동시에 갖춘 교과서, 교사와 학생의 학습 과정을 존중하는 내러티브적 구조의 교과서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교과서는 성전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학습 자료로 기능할 뿐’이라는 일반적인 진술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지 않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교육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비중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교육제도와 정책들은 오히려 그와 반대의 교육현상을 형성해 왔다. 미래지향의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학년군과 교과군이 학습내용의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개발된 사회과교육과정은 오히려 내용의 중복과 확산에 치중되어 있어서 교과서 개발 과정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습량은 축소되지 못하였고, 내용 중복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교육과정 대강화와 학년군제, 탄력적 환경확대법이라는 슬로건 모두가 소위 학습자를 위한 대응책이지만, 사회과교육과정은 그러한 특징들을 각론에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말았다. 그 이유에는 총론과 연계된 각론 개발 부재와 내용 영역별 성취기준 개발 치중 등 사회과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사회교과서는 개발 보급과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에 의하여 엄격한 비판을 받을 것

이다. 사회교육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별개로 여러 시각의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부터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교과서의 해석자는 교육과정의 해석자보다 많다. 교과서의 독자는 교육과정의 문제를 상정하기 보다는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을 문제 삼게 된다. 수업의 내용과 방법은 교사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분야이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수업의 내용보다 교과서의 내용을 문제 삼을 것이다. 이상 살펴 본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교과서는 현장감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조건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과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 편찬위원회는 함께 연구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교과서 개발의 어려움은 교육과정 내용의 해석뿐만 아니라, 개발진의 합의와 조정 과정에도 존재한다. 교과서 연구진과 집필진 및 심의진들이 사회 현상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합의 또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사회교과서는 교과서의 주 독자인 교사와 학습자를 고려하는 교과서 개발에 이견이 없다. 지금까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사회교과서 개발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는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사회과 변화함에 따라 사회과 내용의 핵심인 개념들도 생성 소멸 변화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지식의 구조와 그 준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몇 가지 개념과 나열적 지식의 증산이 아닌, 새로운 지식의 위계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사회과교육과정 내 영역별 내용에 대한 범위와 계열을 분석·연구할 필요가 있다. 내용 영역별 연계성은 학년군과 교과군의 편성과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중복을 지양하는 기본적인 연구이다. 각 영역별 주요 내용과 개념의 위계성을 확보하고, 이를 학습자의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체계화하는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진의 개발 의도와 해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발 보급에는 해설서가 편찬되었다. 해설서의 편찬은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의도와 설명을 담아 교사들에게 교육적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9 개정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은 그러한 해설서 없이 교사들에게 예시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애매모호한 문서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간략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설서를 제시하거나, 교육과정의 세부적 형식을 일관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집필자와 심의진의 의사소통 과정을 공유하는 일이다. 교과서 개발은 집필자와 연구진, 심의진과 검토진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집필자의 집필의도를 모든 개발진이 공유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전달식 소통을 줄이고 효율적인 편찬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집필진과 연구진의 교과서 개발 의도가 살아있는 바람직한 지도서의 방식을 연구하는 작업이다. 교과서 편찬은 매우 짧은 시간에 급박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기초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과교육의 근본적인 성격을 살리는 기초연구가 절실하다.

현재 사회교과서 집필자들은 모호하고 중복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놓고 그 교육적 의도를 이해함과 동시에 교과서 내용의 폭과 깊이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 혹은 성취 기준 자체에 충실한 소극적 재구성에 만족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교과서의 문제는 곧 학교 수업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회교과

서 개발에 나타난 난제들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과 보다 나은 사회 수업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강현석(2009). 부르너의 교육과정 이론에서 지식의 재해석 지식의 구조와 내러티브의 관계. *교육철학* 38, 1-34.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2011).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09).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한솔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별책7)*.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두정(1989).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3, 69-78.
- 김영석(2007). 사회과 교과서의 문제와 개선 방향. *사회과교육연구* 14(2), 1-13.
- 김재복(1997).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연구회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김재춘(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한국교육과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05-125.
- 진주교육대학교국경도서편찬위원회(2012a).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 5·6학년 교과서 내용제시방식 연구 보고서. —————(2012b).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 5·6학년 교과서집필진 워크숍 자료.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 3·4학년 교과서집필진 워크숍 자료.
- 방지원(2009). 2007년 개정 역사교육과정의 계열성과 교재구성방향. *사회과교육연구* 16(4), 17-32.
- 홍미화(2012). 사회과 교육에서 내러티브의 가치.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집, 177-191.
- (2011). 2007 개정 사회교과서 적용에 따른 초등교사의 사회수업 변화. *사회과교육연구*, 18(2), 125-142.
- (2011).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과정해석에서 교과서집필까지, 교과서 저자되어보기, 교과용도서개발 전문가 양성 연수 교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43-67.
- Apple, M. W.(1986). *Teacher and Texts*. New York &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runer, J. S.(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swic, E. et al.(1990). "The Development of School Textbooks and Teaching Materials". Report of an IIEP Seminar (Paris, France, November 27-30).
- Clark, L.H.(1970). *Teaching social studies in secondary schools*, New York: Macmillian Publishing Co,
- Cunrey, V.(1988). *The Politics of Textbook Adoption*, PS; v21 n1 Win 1988.
- Zeichner, K. M. & Liston, D. P.(1996). *Reflective Teaching: An Introduc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ew Jersey.